

YELLOW MAGIC

노랑이라는 마술

마술이 불가사의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기술이라면, 색도 마술을 부린다.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마음이 색채를 통해 움직이고 행동이 변화하는 것만큼 엄청난 마술이 또 있을까. 이를 그저 색채의 작용 혹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색의 신비로운 힘을 단편화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색채의 마력」을 쓴 일본의 문학 교수 히마모토 다카시와 이토 마사히로는 “색채의 배후에는 장대한 대우주가 펼쳐져” 있다고 했다. 노랑이 소용돌이치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과 붉은 바다가 펼쳐진 듯한 마크 로스코의 그림이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이유다. 색 중에서도 노랑이 지닌 마법의 힘은 으뜸이다. 태양의 빛과 가장 가까운 노랑은 빛의 작용만큼이나 파스하고 찬란한 마술을 부린다.



식욕을 돋우다 : 프랑스 요리학교 릴 플로랑트

색을 사용해 질환을 치료하는 색채요법에서는 노랑이 식욕을 자극하거나 소화를 촉진해 위장질환을 다스릴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작용으로 음식과 관련된 공간에 노랑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과감한 색채 선택으로 인상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프랑스 디자이너 마탈리 크라세(Matali Crasset)는 노랑과 하양의 조합으로 노르망디의 요리학교 인테리어를 디자인했다. 이 공간은 호텔경영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요리 실습을 하거나 수업을 하는 공간으로, 크라세는 프랑스 후식인 '릴 플로랑트(L'île Flottante)'에서 디자인 모티프를 가져왔다. '떠 있는 섬'을 뜻하는 '릴 플로랑트'는 달걀 노른자를 이용한 앙글레즈 버터크림에 달걀 흰자로 만든 머랭을 띄운 요리다. 노란 바닥에 놓인 흰 가구는 후식 이미지 그대로여서 요리를 배우려는 학생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크라세는 “배움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나 혁신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디자인 배경을 설명했다.

Photography © Philippe Piron
http://www.matalicrasset.com



L'île Flottante

France

혁신을 이끌다 :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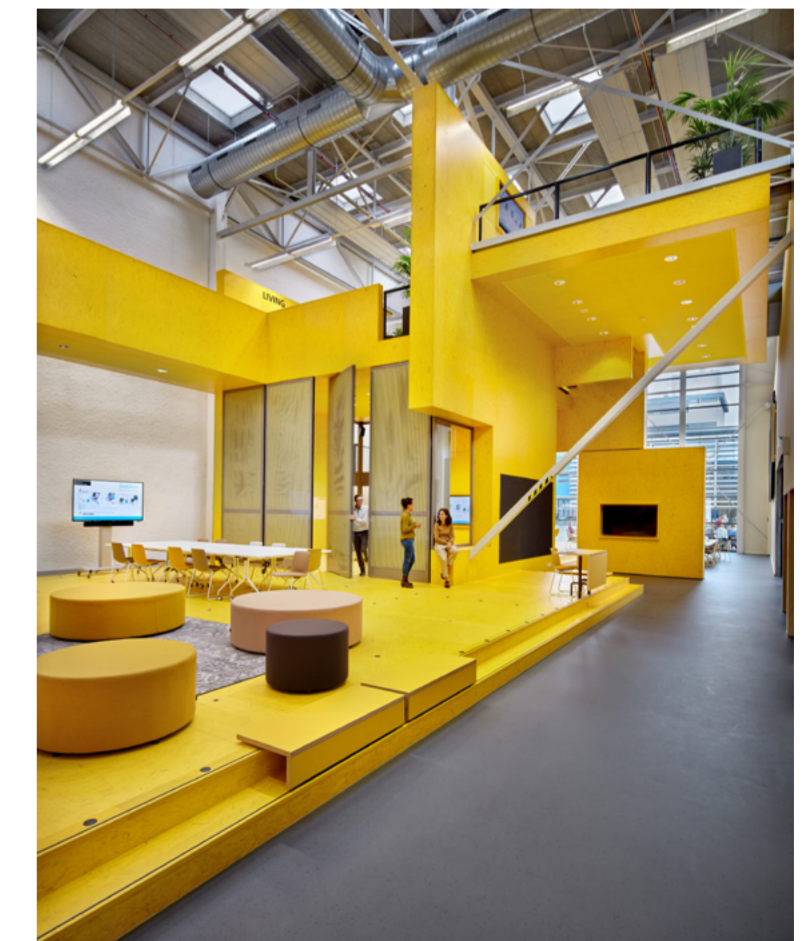
연구실이나 실험실 같은 공간에는 어떤 색이 어울릴까? 주변에서 흔히 보듯 흰색이나 회색 같은 무채색이 집중을 요하는 공간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네덜란드 건축사무소 그룹 에이(Group A)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깬다. 그룹 에이의 실험적인 건축가이자 아티스트인 크레인 데 코닝(Krijn de Koning)의 작고 노란 3D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델프트 공과대학교의 교육 실험실 전체에 노랑을 적용했다. 교육 실험실은 주로 교수들이 교육법과 도구들을 실험하고 연구하는 공간으로, 그룹 에이는 노랑을 선택한 데 대해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창의력을 자극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실험실이 있는 4층 건물은 서로 연결돼 공간 구분이 없는 개방된 구조로 디자인됐지만, 파티션을 설치하면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창의적인 사고 활동을 자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소파와 의자를 곳곳에 배치했다. 교육 실험실은 2017년 9월에 오픈 됐으며, 공간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Photography © Digidaan, Amsteden
http://www.groupa.nl



TU Delft

Netherlands



Studio for Two

India



사교를 고무하다 : 인도 스튜디오 퍼 투

색채심리에서 노랑은 자신감과 낙천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을 주는 색으로,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공간에 사용하면 좋다.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스튜디오 우드(Studio Wood)는 2016년, 아파트 옥상에 경량 임시 스튜디오를 신축했다. 강철 구조물과 컨테이너를 재활용해 만든 이 스튜디오는 두 명의 젊은 기업인이 사무실과 주거, 파티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너비가 다른 두 개의 천창을 만들어 실내의 채광과 통풍을 최대화했고, 통유리를 이용해 안과 밖이 통합된 느낌을 주었다. 외부에는 나무 마루, 그네, 벽 전면을 활용한 화단을 설치해 사교, 미팅, 휴식 공간을 구현했다. 무엇보다 차분한 모노톤의 실내 분위기와 대비되도록 외부 화장실 철제 미닫이 문을 노랑으로 칠해 밝고 화사한 공간을 마련했다. 노랑색 가구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유도하는 좋은 장치다.

Photography © Rohan Dayal
http://studiowood.co.in



미래를 밝히다 : 미국 캘빈 클라인 매장

2017년 7월 뉴욕의 캘빈 클라인 본사 매장이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거쳐 재개장했다. 새롭게 발표된 인테리어 디자인은 어느 매장 분위기와 전혀 다른 파격적인 모습이다. 벽, 천장, 구조물까지 밝은 노랑으로 입혀진 매장은 미국 아티스트 스티어링 루비(Sterling Ruby)의 작품으로, 캘빈 클라인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라프 시몬스(Raf Simons)가 2017 가을/겨울 런웨이에서 처음 발표한 '205W39NYC' 컬렉션이 전시돼 있다. 밝은 노랑, 안전 표시 테이프, 교통 표지판의 경고 문구 색상에서 영감을 받은 스티어링 루비의 디자인은 미국의 밝은 비전과 캘빈 클라인의 새로운 시대를 암시한다. 그는 이번 디자인에 대해서 "브랜드의 미래를 기념하는 상징으로 보여져야 할 것이며, 이 매장을 통해서 캘빈 클라인의 새롭고 찬란한 앞날을 시사하고 싶다."고 작업 배경을 설명했다. 황금, 부, 권위,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피테가 "빛에 가까운 색채"라고 말했다 빛을 담고 있는 노랑은 브랜드의 미래를 밝힐 색으로 탁월한 선택이다.

Photography © 2017 Elizabeth Felicella/Esto Photographics
http://www.calvinklein.com



Calvin Klein

USA



English for Fun

Spain



공부에 재미를 더하다 : 스페인 영어학원 잉글리쉬 퍼 펀

색채치료에서 노랑은 두뇌 활동을 자극시켜 운동 신경을 활성화하고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색으로 통한다. 자칫 따분하고 지루해질 수 있는 학습 공간에 노랑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에너지를 고양시켜 즐거운 분위기로 전환할 수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영어학원 '잉글리쉬 퍼 펀(English for Fun)'은 노랑색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예다. 교실 벽과 가구를 노랑계 칠해 발랄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복도에는 벽 대신 가구를 파티션으로 설치해 교실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개방된 공간으로 디자인했다. 가구는 수납 기능 외에도 아이들이 올라가거나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해 재미 요소를 더했다. 모듈식 원목 책상과 책장은 수업 방식에 맞춰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납이 가능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건축사무소 리카 스튜디오(Rica Studio)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진행했다.

Photography © Miguel de Guzman from Imagen Subliminal
http://ricastudio.com



행복을 전하다 : 영국 버니 그랜트 아트센터 카페

노랑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대표적인 색이다. 이렇듯 긍정의 느낌이 가득한 노랑을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 활용하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런던의 버니 그랜트 아트센터(Bernie Grant Arts Centre) 카페는 노랑이 마법처럼 펼쳐지는 곳이다. 이 카페는 2007년에 문을 연 아트센터를 대대적으로 리노베이션할 때 인테리어를 새롭게 디자인했다. 디자이너 모락 마이어스코프(Morag Myerscough)는 그녀의 대표적 스타일인 기하학적 패턴과 대담한 색채로 카페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세모, 줄무늬 패턴과 원색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장식하고, 아티스트 루크 모건(Luke Morgan)과 작업한 재활용 가구들을 추가했다. 또 차가워 보이는 콘크리트 바를 나무 소재로 마감하고 바 전체를 노랑으로 칠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쪽 벽에는 나무 판을 덧댄 뒤 식물로 장식해 싱그러움 느낌을 더했다. 차갑고 색 바랬던 카페는 이제 행복하고 생동감 넘치는 곳이 됐다.

Photography © Gareth Gardner
http://www.studiomyerscough.com



Bernie Grant

UK

